

토요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오늘영상 - 감은사지 사리함 (금강경독송회)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금강요집경
- 법 사 : 최연식 교수님 (사학과)
- ♪ 오늘의 찬불가 "보연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1.15(토)	우담바라 (신간소설 봉정사)	남지심 (소설가)
11.22(토)	나의 신행이야기	박상관 (운영지원본부장)
11.29(토)	기타선율에 법문을 실어	지담스님 (동림회 사무차장)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매주(토) 법회 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한시반	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정각원 불교대학생 종단필수교육 필참안내
16일(일) 13시~17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지하2층)

이웃사랑음악회
♪ 중구 가족어울림 큰잔치 ♪



● 1일(토) 본관 중강당에서 정각원과 중구불교협의회, 신당 데이케어센터에서 주최·주관한 「중구 가족어울림 큰잔치 (이웃사랑음악회)」가 성황리에 봉행되었습니다. 400여분의 지역 어르신과 후원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각원합창단 음성공양과 국악, 가요, 색소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중구불교협의회(회장 법타스님)에서 중구청에 이웃사랑 후원보시금(11,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정각원 신도회에서 쌀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본교 학인스님 기숙사) 백상원 160kg 해광사 40kg

대학 입시 기도 축원

2014학년도 수험생들이 맑은 정신으로 시험에 임하며, 원하는 대학에 원만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동참!!!



- 합격인등 : 5만원(1년)
- 당일축원 : 1만원

베트남 전쟁의 「상처와 치유」를 위한 '세종학당' 건립기금 마련

자선 음악회

- 일 시 : 2014. 11. 20(목) 19:30~
- 장 소 : 국립극장 '청소년 하늘극장'(정충동2가 14-67)
- 티 켓 : 100,000원(A석)
- 출연진 : 중앙국악관현악단, 김덕수와 사물놀이, 안숙선, 김영임 외 다수

※ 후원계좌 - (사) 국제연꽃마을

보시동참

11월 3일 불전 공양

₩ 1,806,000원

법타스님, 마가스님, 강은희, 고목훈, 권혁채, 김광한, 김동연, 김삼열, 김승한, 김종관, 김형근, 남창강, 박경자, 박영순, 박창희, 백광호, 양승문, 양차은, 오원근, 원서준, 윤지나, 윤호문, 이기형, 이상환, 이성부, 이수준, 이승용, 이정숙, 정규화, 정용우, 정원주, 정찬근, 조분옥, 주해선, 주호빈, 주호성, 최선자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863,000원

(법사비, 토요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중구 이웃사랑음악회 보시
(30만원 이상)

도윤스님, 정운스님, 김인재, 단우물어린이집, 법인사무처, 보현회, 불교대학원 재학생, 신당5동 어린이집, 유석천, 중림사회복지관 직원노동조합

팔정도 보시
원진영

인등 보시

김태근, 박소현, 박창희, 송재근, 안소영, 양병윤, 오문균, 유성준, 유익, 이병재, 이상윤, 이수현, 이준상, 이현정, 장재혁, 진나현, 진민영, 진준호

공양 보시

- ❖ 불단 과일 : 정각원 신도회
- ❖ 불단 떡 : 공영대본부장님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65일 108배 릴레이정진
동참 연인원은 현재 5406명입니다.



정각원 토요일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8(2014)년 11월 8일

제266호(週刊)



선과 악의 결과는 오직 자신만이 받게 될 뿐, 부모나 형제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항상 덕스럽고 깨끗한 행동을 한다면 결과에 대해 두려워할 것은 없다.

「출요경」



150년만에 우리궁전(승정전) 찾은 네덜란드 국왕!



거스 히딩크 친필사인



◎ 3일(월) 국빈 방문한 네덜란드 국왕내외가 국내대학 최초로 동국대를 방문해 정각원에서 왕실주관 「창조 및 학습경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본교의 학구적 환경과 정각원이 갖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국왕 부부(빌렘 알렉산더르 국왕, 막시마 소레기에타 왕비), 경제사절단 담당 특사 '거스 히딩크'(前국가대표 축구감독)와 네덜란드 정·재계, 대학교수 등 귀빈 40여 명이 함께했으며, 학교 대표로 박정극 학술부총장과 재학생 2명도 참가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金藏要集經』 편찬자 道紀스님과 불교 대중화

최연식 교수님(사학과)

1. 보물로 지정된 『金藏要集經』

지난 2007년 9월에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金藏要集經』이 보물 제1525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은 중국 남북조시대 말기에 활동했던 道紀 스님이 편찬한 책으로 그동안 국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책이었다. 2000년 무렵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전해지는 고문헌을 정리하던 중 이 책의 존재가 알려졌는데, 당시에는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책이어서 어느 시대에 누가 편찬한 책인지, 어떤 성격의 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 중국의 『續高僧傳』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되고 일본에서도 같은 책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어 제작자와 제작시기, 책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한 책일 뿐 아니라 사례가 많지 않은 고려 중기의 목판 인쇄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보물로 지정되게 되었다. 아쉬운 것은 새로 발견된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본이 『금장요집경』 전체가 아니라 앞부분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책은 본래 7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본은 권1과 권2 두 권뿐이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목판을 만들어 대량으로 인쇄했던 만큼 나머지 책들도 어디에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0년 경 한 고문헌 수집가의 수집 문헌들 중에 이 책의 권3과 권4가 발견되었고, 금년에는 이 책의 권5 부분이 『諸經合部』라는 이름의 책 속에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책들도 곧 발견되리라 기대된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도 『금장요집경』과 같은 내용의 책이 『金藏論』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다. 일본에는 권1과 권6이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돈황 문헌 중에서 권5와 권6의 필사본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 나라에 전해지는 책들을 모으면 마지막 권인 권7을 제외한 전체의 내용 대부분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일본과 중국의 책들도 우리나라에서 『금장요집경』이 발견된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3국에서 오랫동안 잊혀 있던 『금장요집경』(『금장론』)이 갑자기 출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 『金藏要集經』과 불교 대중화

『금장요집경』을 편찬한 道紀스님이 『금장요집경』을 편찬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續高僧傳』 중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

道紀스님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알 수 없다. 『成實論』 연구자로 명성이 높았는데, 문하에서 공부한 제자 중에 학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따로 나가서 스스로 제자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도기 스님은 이를 기뻐하면서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마치려고 하였다. 어느 해 가을 새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 (수도 남쪽의 사찰에서 강의하기 위하여) 상수 제자들을 이끌고 鄴城의 남문을 나가게 되었다. 그때 마침 옛 문인이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업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성문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는 길을 비키려 하지 않았다. 이에 도기 스님이 '그대는 어디에서 오기에 이처럼 예의가 없는가. 어떻게 스승과 마주쳤는데 길을 비키지 않는가. 어서 옆으로 길을 비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문인은 '법고를 울리어 강의를 시작함에 제가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를 다투며 스승과 제자가 어디 있던 말입니까.'라고 답하였다. 이에 도기 스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비켜주었다. 스님은 성 밖으로 나온 후에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성실론』을 강의한지 30여 년이 되었다. 깨우침을 열어 道로 나아가게 인도하며 그 성과가 있기를 바랐다. 근본을 깨달아 그것을 실천 하라는 것이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론을) 이해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

이는 근본을 깨닫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지금까지의 나의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대들은 모두 도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헤어져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한다.'

이후 스님은 방에 틀어박혀 여러 경론들을 두루 읽으며 사람들이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에 여러 경전에서 관련되는 글들을 모아 책을 편찬하고 이름을 『金藏論』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전체 7권이며, 비슷한 이야기들을 모아 하나의 篇으로 하였다. 사찰과 탐, (사찰을 장식하는) 깃발과 燈을 만들어 공양하고 불경과 불상 앞에 귀의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큰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을 모았다. 책을 완성한 후에는 일곱 명의 동료들과 함께 수도 鄴城 동쪽의 교외로 나아가 머물렀다. 이후 주변의 일곱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은 후 『금장론』을 강설하였다. 하루에 한 마을씩 차례대로 7일 동안 일곱 마을을 순회하였다. 마을에 갈 때에는 늘 직접 짐을 메었고 남루하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짐은 경전과 (예배용) 불상과 불탑이 한 짐이고, 늙은 어머니와 빗자루가 한 짐이었다. 다니면서 절과 탐이 있는 곳은 항상 청소였다. 사람들에게 '경전에서 승려들이 머무는 곳을 염부제만큼 많이 청소해도 부처님이 머무는 곳을 한 뼘만큼 청소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지혜가 그만큼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또 직접 어머니를 봉양하는 자는 그 복이 十地의 경지에 오른 보살과 같다.'고 하였다. 효성이 매우 깊어 어머니를 위해 직접 바느질하고 요리하였으며, 대소변도 직접 받아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혹 도와 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스님은 '나의 어머니이지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의 몸이 곧 나의 몸이다. 몸이 있으면 따르게 마련인 고통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는가. 몸이 있어 생긴 고통이니 그대는 도우려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권장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사람들에게 八戒를 잘 준수하고 (6齋日에는) 함께 모여 정결한 음식을 먹고 가축을 도살하지 못하게 하였다. 7일 후에는 다시 그 마을에 가서 이전의 가르침을 다시 설하였다. 이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교화하였으므로 몇 년 사이에 업성 주변의 여러 마을 사람들 중 열의 아홉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게 되었다. 옛 동료가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근래에 세속 사람들을 교화하고 계시는데, 다시 교학을 강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기 스님은 '그때에 강의를 그만둔 것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지만 어찌 다시 그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장요집경』은 도기 스님이 대중 교화를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스님은 본래 교학 전문가로 명망이 높았지만 옛 제자의 오만한 행동을 경험한 후 교학 연구가 곧 바로 불교적 윤리의 실천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하여 참된 불교적 윤리의 실천을 위해 교학 연구에서 대중 교화로 전향하였다. 스님은 불경에서 불교적 도덕과 윤리를 홍보하는 내용들을 모아 『금장요집경』을 편찬한 후 동료들과 함께 직접 이 책을 가지고 민간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강설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불교 윤리를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였다.

서기 2세기 경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남북조시대에 들어와 중국 사회에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 지식인들을 상대로 한 엘리트층의 불교였다. 수준 높은 불교 이론과 고승들의 뛰어난 학식에 감동한 국왕과 귀족, 학자들이 불교의 주된 지지자였고, 승려들에게 기대되는 것도 교학 연마와 개인적 수행이었다. 일반 대중들과의 교류는 기대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널리 행해지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트화로 인해 불교계는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어 불교 본연의 도덕과 생활 윤리를 상실하는 모습을 노정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도기 스님은 불교적 윤리와 도덕의 회복을 위해 대중교화라는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대중 교화를 위한 새로운 텍스트로서 『금장요집경』을 편집하였다. 『금장요집경』은 큰 사찰에서 강설되는 여러 경론에 비해 훨씬 소박하였지만 불교적 도덕과 윤리의 회복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론보다도 훨씬 절실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금장요집경』을 편찬한 도기 스님은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대중교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